

光州日報와 함께 행복한 주말을

Weather

광주·전남 휴일 날씨

5(土)	6(日)
구름 많음 23/30℃	구름 많음 22/30℃

News

- 코스피 1600 붕괴 ②
- 운전면허 대사전 이후 ③
- '흑진주 자매' 결승 격돌 ⑧

Books

- 놀이, 창조 의 샘 ⑭

Entertainment

- 대형가수들 줄줄이 복귀 ⑧
- 한국판 블록버스터 대반격 ⑨



Wellbeing

- 식품 탐구 - 톳 ⑬



우암직립 창립 55년 역사와 전통

공주이 내로인 명문종합대학교

남부대학교
www.nabund.ac.kr

새로운 미래를 위한

전남과학대학
www.jnsc.ac.kr

‘사랑의 초밥’ 만들기 20년 매년 4~5억원 ‘기부 천사’

서울서 일식집 운영...장성 출신 배정철씨

지난 3일 오후 5시, 서울시 논현동에 자리한 일식집 ‘어도’.

종업원 모두가 저녁 손님맞이 준비에 여념이 없었다. 15개 정도의 방과 23명의 종업원, 외형상 강남의 일반적인 대형 일식집과 크게 다르지 않은 곳이다. 하지만 이곳에는 다른 곳에서 보거나 느낄 수 없는 것이 있다.

하나는 출입구 왼편에 있는 커다란 ‘모금함’과 또 하나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식당 내에 흐르는 훈훈한 인정이다.

능숙한 솜씨로 칼질을 하는 배정철(46) 사장. 그에겐 ‘기부천사’라는 별칭이 따라다니듯 따뜻한 이 배어났다. 매년 4~5억원을 기부하는 배 사장의 별명은 ‘기부하는 초밥왕’ ‘기부천사 초밥왕’ ‘기부하는 회칼’ 등 다양하다. 모두 불우한 이웃들을 위해 헌신해오다 얻은 명성(?)이다.

배 사장의 고향은 장성군 진원면 진월리. 5세에 아버지를 여의고 초등학교 5학년 때 홀어머니와 함께 상경, 끼니를 거를 정도로 힘겨운 시절을 보냈다.

그가 첫 직장을 잡은 것은 16살 때 불광동에 있는 한 일식집. 그는 잔 심부름을 하면서 걸음으로 ‘칼질’을 배웠고 각고의 노력 끝에 어엿한 주방장으로 성장했다. 5년 뒤인 1992년, 그는 마침내 일식집을 개업했다. 그리고 배 사장은 이때부터 단 하루도 쉬지 않았다. 그에게는 명절도, 휴가도, 여행도 없었다.

“창업 후 10여년 동안 원없이 돈을 벌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어릴 적 배고픔 생각하며 독거노인·장애우에 온정 대학병원에도 6억 기부

웠을 때를 생각하며 이웃들에게 눈을 돌렸지요”

배 사장의 이웃 사랑은 나열하기도 힘들 정도다. 20여년 전부터 독거노인에게 제공해온 식사 대접, 종업원일 때는 1년에 서너 번에 불과했지만 사장이 되고 나서는 월평균 400여명의 노인들에게 식사 대접을 하고 있다.

연간 4~5차례 지방 장애우들을 관광버스로 초청해 대접하고 있다. 서울대병원 주최 자선바자회에도 초밥을 무료 제공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그는 이웃을 위해 거의 매일 죽을 쑤고 초밥을 만들

어야 한다.

조용히 이웃을 돌던 배 사장이 일반에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지난 1999년 기형 어린이의 치료비에 쉼달라며 서울대병원에 3천만 원을 기부하면서부터. 그는 “단골 손님이었던 서울대병원 의사 선생으로부터 ‘얼굴 기형 어린이들이 치료비가 없어 평생 불구를 안고 살아가야 한다’는 말을 듣고 힘들었던 어린 시절, 작지만 저에게는 큰 힘이 됐던 주위 사람들의 따뜻한 손길이 떠올라 기부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배 사장은 이때부터 고객들에게 1천~3천원의 소액을 모금함에 넣도록 유도하며 매년 서울대병원에 수천만원~1억원을 기부했다. 물론 기부금의 90% 이상은 배 사장의 사재에서 나왔다. 이렇게 매년 서울대병원에 전달한 기부액은 지금까지 6억4천900만원. 배 사장은 또 올해 처음으로 장학금 2천만원을 순천효천고에 기부했다. 배 사장이 서울에서 중학교 과정인 고등공립학교 과정을 다닐 때 단짝이던 엄주일씨가 현재 효천고 교사로 재직중인 것이 인연이 됐다. 그는 또 고향 장성의 노인잔치 비용으로 매년 수백만 원을 보내고 있다. 이 같은 이웃사랑을 금약으로 환산하면 연간 4~5억원이나 된다.

지난 1992년 결혼한 부인과 슬하에 2남1녀를 두고 있는 배 사장은 불우한 이웃이 있는 한 ‘죽을 쑤고 초밥을 만드는 일’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문화수도 멀티미디어 영상 쇼
문화체육관광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은 4일 광주시 동구 옛 전남도청에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브랜드 홍보 프로젝트’ 행사를 열었다. 옛 전남도청 본관 건물 외벽에 빛을 쏘아 광주의 미래 모습을 보여주는 멀티미디어 영상쇼 모습.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고유가 한계상황 지역산업 ‘비명’

기업 감축생산·연료대체 등 교육지책

국제 유가가 연일 최고치를 갈아치우면서 광주·전남지역 산업계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고유가로 인해 각 기업들이 ‘허리띠’를 바짝 조이고 있는 가운데 유화업계 등 일부 업종은 감산에 들어가는 등 치솟는 기름값에 몸살을 앓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석유화학 등 유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업종들의 감산이나 연료 대체 등 ‘교육지책’이 잇따르고 있다. 석유화학의 경우 유

가상승으로 핵심 원료인 나프타 가격이 급등한 데다 수년간 국내외 시장마저 나빠지고 있기 때문이다.

여수산단 내 N사는 연산 40만 규모인 제 3공장 가동률을 지난 3월부터 90% 수준으로 낮췄다.

또 연산 70만톤을 생산하는 H사는 생산단가를 낮추기 위해 LPG를 대체연료로 활용하는 등 비상체제에 들어갔다.

삼성광주전자와 기아차 광주공장 등도 전사적인 에너지 감축에 나섰

지만 치솟는 기름값을 감당하기엔 역부족이라는 반응이다.

특히 이들 기업에 부품을 납품하는 협력업체들의 고통도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삼성광주전자는 최근 작업장에 고효율 조명등 및 보일러를 설치하고 사무실 통합 냉난방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짠돌이’ 경영을 하고 있다.

기아차 광주공장도 냉난방 관리를 통한 에너지 절감 및 생산용 장갑·드립의 재활용 등 고유가를 넘기 위해 안전권을 쏟고 있다.

【최정호기자 choice@kwangju.co.kr

전남에 고려대 식품회사 들어선다

도·대학 업무협약 체결

고려대학교의 식품제조 분야 자회사 전남지역에 들어선다.

전남도는 4일 고려대 총장실에서 박준영 지사와 이기수 총장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같은 내용의 의약·생물산업, 농어촌 교육 분야, 교류·협력 업무협약을 체결

하고 긴밀한 공조관계를 맺기로 했다.

고려대는 전남지역에 식품제조 분야의 자회사를 설치하고 전남지역 농·수특산물이나 고유 자연자원을 이용한 식품산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올 하반기 관련 식품에 대한 수요분석을 거쳐 투자 분야를 확정할 후 내년 고려대 사업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고려대가 이미 개발해 보유하고 있는 바이오 신약, 기능성 식품, 나노소재 분야의 신기술도 도내 희망 기업에게 이전해 지역산업화 촉진에 나서기로 했다.

전남도는 전략산업인 생물산업의 전문인력을 고려대로부터 지원받아 도내 연구기관이나 사업체에 참여시키고 새로운 기술개발이 필요한 분야는 공동 연구 및 국가 공모사업에 함께 참여할 방침이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세기보청기, 세계 속에 우뚝서다!

대한민국 대표보청기 - 세기보청기

승세기소라·세기보청기

1588-8426 / 062-222-8111

062)2200-5000